

11/3 (샬 7:1-8)

우제윤

제목: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1) 역사를 잊은 민족

2) 오차도 없이 제거하시다

한줄요약: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참고: WBC주석, BST주석

“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수백년 전의 사람과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지능과 사고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본질만 같다면 상황만 다르지 비슷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현재의 우리가 과거의 사람과 다른 것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를 통해 본질은 같은 비슷한 상황들을 과거와 동일한 결론을 막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와 바락의 지도하에 가나안 사람들의 학정에서 구원을 얻은 후 사십 년 동안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늘 그래왔듯이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만 읽어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합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잊어버렸기에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와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며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긴 벌로 미디안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 그들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때 32,0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많은 병력이 필요합니다. 쪽수 앞에는 장사 없다고 전쟁에는 병력의 수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중에 1개라 볼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사람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만명 중에는 물을 떠먹는 방법을 통해 가려서 3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돌려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7:2을 보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했다는 착각을 오차없이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 돌려보낸 병력은 수많은 사람들로 전투하여 내가 이겨냈다는 것을 없애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 돌려보낸 병력은 물가에 입에 댄 것으로 봐서 성격이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으로 보이니 그들의 굳셈이 전쟁을 이긴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려함이 아닐까 묵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선택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고 그 구원의 완성을 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전부 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은 300명을 통해 일하신 것뿐이었습니다. 300명이라는 숫자가 미디안 대군을 이겼다는 것은 본인들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이 끝나고 본인들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임을 강조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명성을 믿고 우상을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악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굴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1/10 (삿 16:23-31)

우제윤

제목: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1) 삼손이 알지 못한 것

2) 진짜 힘의 비밀

한줄요약: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신다.

참고: WBC주석, BST주석

세상에는 ‘힘의논리’라는게 존재합니다. 힘이라는 존재가 강력하고 모두 그 힘에 의해서 무능력한 상황을 마주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겪고 나면은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 삼손은 힘이 엄청 강했다고 합니다. 그의 힘이 어찌나 강한지 적진에 놀러가더라도 아무도 손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정도였죠. 이 정도의 힘이 있다면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이상할 듯합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무엇이였을까요? 삼손은 블레셋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실체는 삼손과 돈을 맞바꾼 삼손을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었죠.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끊임없는 질문에 삼손은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힘의 원천을 알려줍니다. 삼손이 생각한 그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들릴라는 이것을 블레셋 사람에게 알리고 삼손은 결국 머리카락을 잘리게 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삼손은 원래의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을 뽑히게 되고 큰 멧돌을 갈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은 삼손이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때 삼손은 다곤신전의 중심인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뺄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두 기둥을 무너뜨려 블레셋의 주요 간부를 약 3천명 가량과 함께 자신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장면이 블레셋에게 당한 수모를 하나님이 잠깐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어 마지막 복수를 하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진짜 힘은 하나님에게 있던 것입니다. 삼손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쓸 때 “여호와와 영이 임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나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삼손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삿 13:5절을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만을 본다면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삼손을 사신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뤄가고 있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11/17 (샷 21:15-25)

우제윤

제목: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 그리스도

1)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시대

2) 악의 전염

한줄요약: 소견대로 살면 악함만 가득하기에 우리의 바른 기준이 되실 왕이 필요하다.

참고: WBC주석, BST주석, HOW주석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살면 망합니다. 만약, 아이가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올바르게 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기준을 가지고 올바름을 판별하고는 하는데 그 기준이 자신에게만 있다면 자신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요, 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얼마나 올바른 판단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법이 있는 것도 공동체에는 리더가 세워지고 나라에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법과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제멋대로 살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1:1-3:6)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죽은 이후의 개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두 번째 부분(3:7-16:31)은 사사들의 활동 내용을 통해 발단을 제공하고 세 번째 부분(17:1-21:25)은 시작과 끝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라는 말로 사사들 이후에 왕정제도 발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사기 전체가 왕이 없어진 상태로 흘러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자의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믿음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그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절에는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며 사사기를 끝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아내를 윤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대립구도로 있다가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멸망 직전까지 가서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여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9-21장을 보면 한 집단의 죄가 지파의 죄로 확대되고 지파의 죄가 모든 지파의 죄로 확대되면서 한 나라의 사악한 행동으로 확대됩니다. 결국 기브아 사람들의 윤간의 죄, 베냐민 지파의 죄를 은폐하고 징계하지 않은 죄, 다른 지파들의 비윤리적 행동의 죄를 통해서 성경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론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왕되신 그리스도가 없이 자신의 소견이 옳은대로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지 않고 악을 행하며 그 악은 점점 전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기준이 되어주실 왕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1/24 (에 4:13-17)

우제윤

제목: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1) 왜 아하수어로 왕비가 되어 있는가

2) 죽으면 죽으리라

한줄요약: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그 목적을 찾아야 한다.

참고: WBC주석, 조정민목사 설교영상

에스더서에서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본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만에게 절을 했더라면 민족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다고 합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왕비가 된 후에는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개가 이렇게 자신의 슬픔을 성중에서 대성통곡한 것은 의도적인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작전은 성공하였고 에스더는 하인을 통해 자초지종을 듣고 보통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왕을 만나서 이 일을 해결해주길 바라지만 에스더는 왕을 만나는 일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에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도전을 주는데요. 만약 에스더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유대인이 구원받을 역사에서 퇴장을 당한다고 합니다.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개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할 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 아니라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는 본질을 보았던 것이죠.

이어서 말하는 것은 “너는 왜 그 자리에 있냐는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 너는 깊이 생각해보았는가? 자신이 이뻐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아느냐? 혼자의 힘으로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면서 “왜 아하수어로 왕비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생각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나의 인생도 주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왕비라는 자리를 괜히 준 것을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아하수어로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를 보면서 일침을 가합니다.

그제서야 에스더는 정신을 차리고 3일간 자신과 하인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으며 능력과 뜻을 구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왕비라는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소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소임이 나중에는 사명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본질을 이뤄가시는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감당하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